

# 제주장수사회의 도래 : 진단과 향후 과제\*

고 승 한\*\*

## 목 차

- I. 들어가면서
- II. 장수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
- III. 장수사회의 도래와 제주지역
- IV. 지속가능한 사회로서 장수사회 : 제주의 향후 과제
- V. 나오면서

## I. 들어가면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며 미래사회에서 인간과 사회는 어떤 상호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주요한 사회과학적 연구 관심대상일 것이다. 그렇지만 미래사회에서 일어날 다양한 특성과 변화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변화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미래사회에 대한 모습들이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가능한 설명되고 있다.

최근에 글로벌화(Globalization 세계화, 지구촌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도, 한편으로 세계와 지역이 상호 융합과 팽창 과정을 겪으면서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는 경제, 정치,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확산 및 팽창 과정을 겪고 있다(박길상 외, 1996:189-198).

이런 변화는 일찍이 Bell(1991)이 언급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및 지역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 이 글은 2008년도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장수건강산업연구회가 주관한 「제주의 장수건강산업 연구활성화 모색을 위한 세미나」(2008. 11. 21)에서 발표한 “장수사회 구축을 위한 제주지역의 진단과 과제.”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비약적 발달에 의해서 더욱 급진전되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탈산업사회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 지식과 정보를 기본 축으로 구성되는 사회영역이다.

탈산업사회(Bell, 1973)에서 지식과 정보가 주요 사회적 자원으로써 규정되어 경제, 직업, 기술, 사회생활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기술공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대사회는 위험사회(Beck, 1999: 재인용)로 치닫고 있으며 위험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종래 개인 혹은 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사회의 한 모습이 바로 초고령사회이다. 일부 선진국은(예컨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초고령사회는 저출산의 팽배, 평균수명의 급증, 과학의료기술의 발달, 좋은 영양상태 등으로 도래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은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5). 또한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지만 동시에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과 같은 여러 사회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인구구성 변화에서 노인층의 증가와 젊은 층의 감소는 소비와 저축의 위축으로 결국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다(박동석 외, 2003). 다른 한편으로, 고령사회에는 새로운 노인문화가 형성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이 발전되어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이견직, 2007).

제주지역은 다른 시·도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장수도(長壽度)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박삼옥 외, 2007). 물론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도 ‘장수의 섬’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에서 일반적 특성으로 전망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으로 궁극적으로 2016년 이후에는 잠재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국은행 제주본부, 2005).

제주도는 초고령사회라는 미래사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런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다각적 진단을 통하여 장수사회<sup>1)</sup>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불확실의 미래사회를 아무런 준비없이 기다리면 희망보다는 부작용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된다. 제주장수사회는 고령층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역복지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수사회는 하나의 이상사회(Ideal typed-society)일 수 있다.

본 글은 제주지역이 당면한 고령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특히 인구, 사회경제, 문화 등)들을 고찰하고, 향후 제주사회가 장수사회의 도래에 앞서 준비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 II. 장수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

### 1. 인구학적 변화

우리나라는 서구화, 산업화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과학, 의료보건, 농업, 영양, 생활수준 등의 분야에서 발전해 왔고, 그 결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7월말 현재 10.8%를 차지하여 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표 1. 참고).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확산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국 35개 군 지역은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를 넘어서서 이들 군 지역은 ‘초고령 사회’ 혹은 ‘장수사회’로 이미 진입하였다<sup>2)</sup>.

- 
-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UN의 분류에 의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14%~20% 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통계청, 2007). 여기서 ‘장수사회’는 노인인구 구성 비율이 고령사회(aged society)와 유사하나 특히 백세인 노인인구가 많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복지공동체 특성을 지녀서 노인의 삶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 2) (통계청, 2005: 5)에 따르면, 2004년 시 군 구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경남 남해군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남 의령군(25.7%), 경북 의성군(25.2%), 경북 군위군(25.0%)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1&gt; 인구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단위 : 만 명, %)

내용 \ 년도	1980년	2005년	2020년	2030년	2050년
총인구 (A)	3,741	4,829	4,996	4,993	4,235
생산가능인구(B)	2,330	3,467	3,584	3,189	2,276
노인인구 (C)	145	438	782	1,190	1,579
C/A	(3.8)	(9.0)	(15.6)	(23.8)	(37.2)
유소년인구(D)	1,295	924	630	554	380
D/A	(34.6)	(19.1)	(12.6)	(11.0)	(8.9)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특히 4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거의 4배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활동인구 보다는 노인층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경제 현상으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층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노인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노동, 여가 등)에 획기적 변화를 예고한다.

서구사회의 일부 선진 국가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오랜 준비기간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변화에 대응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고령화 사회 혹은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참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2050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가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뿐 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들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단위 : 년도, 년수)

구 분	도달 년도			소요 년수	
	고령화사회* (7.0%)	고령사회 (14.0%)	초고령사회 (20.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구분은 UN의 분류에 따라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의해서 구분된 것임.

## 2. 경제적 문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노인대국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저출산(2008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최하위)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동시에 극복 방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강연희 역, 2002 ; 박동석 외, 2003). 고령사회가 당면하게 될 경제적 충격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사회적 증폭은 노동시장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국가재정 분야에 충격을 안겨 줄 것이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는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공급 부족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63만 명, 그리고 2020년에는 15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5).

이처럼 생산가능 노동인구의 감소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와 저축을 위축시켜 결국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순환구조 속에서 잠재경제성장률이 떨어져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실업문제가 발생하며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된다.

둘째, 고령층 인구의 급증은 국민연금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는 연금(보험료)에 비하여 나가는 연금(급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금관리 운용에

문제가 없지만, 2036년부터는 보험료 수익보다 연금지급액이 더 커져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2047년경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동석 외, 2003).

따라서 연금가입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0년 후에는 연금재정 위기가 발생하여 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경제성장의 둔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고령층 확산으로 복지지출의 증가는 국가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전망이다. 예컨대, 연금, 조기퇴직, 보건의료 및 장기 요양 등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의한 정부재정 지출은 2000년 GDP의 3.1% 수준에서 2050년에 11.6%로 8.5%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령사회는 경제적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노인층이 경제적 생산 및 소비 주체로 등장하면서 고령소비자 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약 60만 명이던 노령연금 수혜자가 2005년 109만명, 2010년에 183만명에 이를 것이고, 2018년에는 약 80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현재 50세 이상 노인소비자 시장 크기가 전체시장 대비 20.4%에서 2010년 28.7%로 확대될 것이다(이건직, 2007).

고령층 증가로 인한 소비시장의 확산은 결국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부문 혹은 산업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고령친화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고령친화산업은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써 국가 경쟁력 및 시장구매력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건전 재정운명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인하며, 고령인구의 건강, 경제생활, 복지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산업으로써 특성을 지닌다(이건직, 2007:79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2008).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에 약 43.9조원이 될 것이고, 2020년에는 약 148.4조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 분류한 고령친화산업에는 14개 부문에 34개 전략 품목을 정해 놓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표 4. 참고). 먼저 1차로 8대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를 보면, 요양, 기기, 정보, 금융, 주

택, 한방, 농업분야이다. 2차로 6대 산업으로 분류된 주요 산업은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 등이다.

정부가 선정한 고령친화산업들 가운데 제주지역에 적합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은 주로 요양, 여가, 주택, 한방, 농업, 식품, 장묘, 교육 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을 모두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조사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청정1차산업, 관광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표 4> 고령친화 14대 부문 34개 전략품목

부 문		34개 전략 품목
1차: 8대산업 (19개 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연금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 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 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2차: 6대산업 (15개 품목)	교통산업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산업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산업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 서비스
	의류산업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 정용 이너웨어
	교육산업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자료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005.

### 3. 사회문화적 변화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불균형발전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온 결과로 농업·농촌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급기야 개방농정의 결정판인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서 농업·농촌부문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농업·농촌부문으로부터 유출인구가 대·중소도시로 집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지역적 편차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 고령화율이 대도시 지역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높은 고령화는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농업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농업생산성의 저하 등을 가져와 농촌지역의 삶의 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결국 농촌지역사회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만일 농업·농촌부문의 상대적 박탈감 증폭, 고령화의 심화, 농산물 개방의 피해 등이 더욱 심화·지속될 경우 농촌지역은 삶의 터전 혹은 생활공동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암, 심장병, 치매, 골다공증, 관절염 등) 환자 발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와 의료서비스 욕구의 증대가 가중되고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국가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시에 노인 개인들에게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올 것이다. 예컨대, 2005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은 8.3%를 차지하고 있으나 진료비 비중은 24.4%에 달하고 있으며, 노인 1인당 진료비는 15~44세 사이 연령층에 비하여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김현숙, 2006).

만일 노인 개인이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족이 노인에 대한 치료비를 장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차상위계층 혹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극빈층은 정부의 의료급여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보장이 불충분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재정 확충 및 의료서비스 보장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장수시대에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총인구의 71.7%(3,370만명)에서 2050년에 55.1%(2,443만명)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년부양비도 2000년 10.1%에서 2050년 62.5%로 6배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구나 2007년도 노년부양비는 현재 13.8%인데 10년전 1997년(8.9%)에 비해 4.9%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래서 2007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에는 4.6명, 그리고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여 사회적으로 노인부양이 크게 부담될 것이다(통계청, 2007).

또한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노인복지서비스 및 시설 (예컨대, 소득보장, 주거, 건강의료, 여가, 요양 등)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물질·인적 인프라 구축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성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아울러 국가도 사회적 부양의 확대로 노인복지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노인의생활방식변화

분야	과거의 노인층	새로운 노인층
심신상태	병약, 어두고, 고집 센	건강, 밝고, 유연함
생활의식	보수적, 비관적인 인생관	합리적, 미래지향적 인생관
노년기의 인식	인생의 종말기	자기실현의 기회, 제 3의 인생
삶의 태도	검약, 소박, 무 취미	여유, 즐길, 개성있는 다양한 취미
독립성	자녀의 의지, 독립성 약함	배우자/사회시스템의 의지, 독립성 강함
노후설계	자녀세대에 의존	계획적인 노후설계, 독립세대유지
가치관	노인은 노인답게	나이와 젊음은 별개
레저생활	여가는 수단	여가자체의 가치부여
자산처분	자손에게 상속	자기를 위해 사용
여행행태	친목단체등 단체여행	여유있는 부부여행
취미생활	게이트볼 등 노인끼리 교류	취미의 다양화, 다른세대와 교류
생활스타일	한국전통식 생활	타문화 교류적 생활
유행감각	둔함, 후기 추종자	예민, 초기 수용자

자료 : Weber, W. (1995).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s Sports, Schorndorf 24-25. 재인용.

특히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비 증가 문제는 결국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에 새로운 세대 간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 및 소외, 어려운 경제적 생활, 자녀와의 불화, 노인학대 등과 같은 문제로 가출 및 자살을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수사회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밝은 심적 상태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 삶의 태도를 갖는다. 이런 입장은 과거의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인 전통사회와는 다르다. 노인들이 심적 및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연금 및 노후생활 자금, 은퇴 후 취업 등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져 개인적으로 새로운 양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표 5. 참고).

또한 자신의 부양문제도 전적으로 가족성원들에 의존하지 않고 연금이나 다른 사회 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장수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단순히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소비자층이 아니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층으로 참여하게 된다.

더구나 노인층의 확산은 정치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여 노인권리 및 인권, 취업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양한 여가활동, 노인의 정치활동 참여 등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과거 노인과는 전혀 달리 자립적·독립적 생활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미생활을 다양화하여 개성있는 생활 계획을 세워 노인부부중심의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사회의 노인들은 자녀 혹은 자손을 위해 희생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 자체를 위해서 여생을 보낼 것이다. 따라서 장수사회에서 노인들은 스스로 새로운 노인문화를 창출하고, 국가 혹은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역할과 활동에 부응하는 새로운 노인상 정립이 점차 확산될 것이다.

### Ⅲ. 장수사회의 도래와 제주지역

#### 1. 인구학적 변화

제주지역은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1998년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노인의 삶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혹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제주사회는 역사적으로 노인들이 장수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18세기 초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제주섬에는 장수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남환박물지(1704)에 따르면, 이형상 제주목사가 마련한 경로잔치에 백세인 노인이 3명, 90대 노인이 23명, 그리고 80대 노인이 183명이 초대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이 ‘장수의 섬’으로 인식되어 온 사실은 청정자연환경, 식생활습관, 생활환경, 독특한 가족문화, 노인들의 생활방식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승한 외. 2005).

이런 사실은 오늘날 인구통계학적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6>은 지난 8년 동안(2000-2007)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먼저 전라남도가 17.23%로 가장 높고, 다음은 경상북도 14.57%, 전라북도 14.32%, 충청남도 14.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07년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1.04%로 전국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전국의 다른 시·도들 가운데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80세 이상과 8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장수하는 지역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lt;표 6&gt; 전국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비교

(단위: %)

구분	총인구(A)		65세 이상 인구(B)	80세 이상 인구(C)				85세 이상 인구(D)	
			B/A (%)	C/B (%)				D/B (%)	
	2000년	2007년	2000년	2007년	2000년	2007년	2000년	2007년	
전국	47,732,558	49,268,928	7.03	9.87	15.12	15.58	5.67	6.06	
서울	10,311,314	10,192,710	5.42	8.29	15.60	14.75	5.91	5.92	
부산	3,796,506	3,587,439	6.03	9.65	12.46	13.36	4.55	4.69	
인천	2,524,253	2,493,261	5.43	7.69	14.82	15.90	5.29	6.11	
대구	2,545,769	2,664,576	5.90	8.86	13.78	13.76	4.97	5.07	
광주	1,371,909	1,413,444	5.64	8.05	16.37	15.91	6.52	6.41	
대전	1,385,606	1,475,659	5.47	7.72	15.56	15.95	5.82	6.19	
울산	1,040,225	1,099,995	4.05	6.02	15.27	15.34	5.69	5.81	
경기	9,219,343	11,106,211	5.69	7.84	14.87	15.42	5.53	6.02	
강원	1,554,688	1,503,806	9.26	13.45	16.87	16.84	6.15	6.67	
충북	1,497,513	1,506,608	9.09	12.36	15.70	16.12	5.89	6.43	
충남	1,921,604	1,995,531	11.19	14.31	15.20	16.36	5.76	6.41	
전북	1,999,255	1,862,277	10.29	14.32	15.63	16.77	5.89	6.60	
전남	2,130,614	1,929,836	11.94	17.23	15.55	16.43	6.16	6.55	
경북	2,797,178	2,681,364	10.75	14.57	16.09	16.90	5.80	6.57	
경남	3,094,413	3,196,953	8.44	11.09	13.36	15.70	4.89	5.56	
제주	542,368	559,258	7.99	11.04	19.18	18.01	8.88	8.74	

자료: 통계청 KOSIS,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제주지역의 노인인구 분포 상황은 <표 7>에 잘 나타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90년에 5.8%에서 2007년 11.0%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18.0%,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8.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8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단위: %, 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전체인구(A)	514,436	512,091	542,368	557,569	561,695	563,388
65세이상인구(B)	29,832	33,892	43,334	55,795	58,685	62,198
80세이상인구(C)	6,552	7,608	8,313	10,437	10,611	11,202
85세이상인구(D)	2,700	3,313	3,849	4,538	4,923	5,411
B/A(%)	5.8	6.6	8.0	10.0	10.4	11.0
C/B(%)	22.0	22.4	19.2	18.7	18.1	18.0
D/B(%)	9.1	9.8	8.9	8.1	8.4	8.7

자료 : 제주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 년도.

2005년 11월 1일 현재 제주지역의 만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32명으로 2000년 37명에 비해 5명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 8. 참고). 성별로 보면, 여자는 30명으로 2000년 대비 6명 감소하였고, 남자는 2명으로 1명 증가하였다.

<표 8> 제주의 100세 이상 고령자 분포 변화

(명,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21	100.0	19	100.0	37	100.0	32	100.0
남 자	0	-	2	10.5	1	2.7	2	6.3
여 자	21	100.0	17	89.5	36	97.3	30	93.8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	4.08		3.76		7.22		6.03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2006. 6.

제주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6.03명(남자 0.76명, 여자 11.23명)으로 2000년 대비 1.19명 감소함. 그래서 전남 6.3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지역이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전국에서도 장수하는 지역으로 입증되기에 충분하고, 또한 장수도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고되었다(박삼옥 외, 2007). 따라서 제주지역은 장수사회로써 인구학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이 분명히 인구통계학적으로 장수노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연령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보다는 장수노인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 2. 사회적 인프라 문제

제주도가 장수사회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여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복지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 혹은 장수노인들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서비스 제도가 잘 확충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제주지역이 장수의 섬 이미지 제고와 장수사회 구축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장수브랜드 사업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9> 노인복지 생활·이용시설 현황

(2008. 9월말 현재)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계
경로당	233	130	363
양로원	2	-	2
시설급여(요양시설)	26		26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	110		110
노인일자리 관련 시설	1	-	1
노인복지관	3	2	5
노인보호전문기관	1	-	1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21	8	29
계			537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08.

<표 9>는 2008년 9월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시설 및 단체는 경로당을 포함하여 총 537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로당 시설은 거의 마을 마다 있지만 민간양로원 시설은 많으나 공공 양로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관이 1개이고, 노인보호전문기관도 1개뿐이어서 이런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노인종합전문병원이 2개 지정되어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인지도가 낮아 향후 우수 의료진과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진 공공 노인종합병원 시설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장수사회의 구축을 위한 청정자연환경,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고령친화 산업인 장수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발전요인으로써 작용하는 다른 산업여건(관광, 휴양, 농업 등)은 되어 있으나 연구 인프라, R&D, 전문인력 양성기반,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화할 수 있는 장수산업은 역시 요양 및 휴양, 그리고 은퇴자를 위한 주거, 의료, 은퇴/실버 농장, 건강장수식품, 800여 식생물군 분포에 의한 의약품 및 한방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일 것이다.

제주의 장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성이 아직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으나,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노화방지 기능성 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한약재 개발 등과 같은 사업에 관심을 가져 일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제주지역이 장수사회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장수산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아직은 태동기이다. 장수사회 구축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예컨대, 노화연구, 장수산업, 장수문화, 장수식품 등) 기반은 아직까지 아주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인프라 시설(예컨대,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등)이 약간 있다는 실정이다.

### 3. 사회경제적 변화

제주지역은 2015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2018년)보다 다소 빠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는 전국보다 다소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제주본부, 2005).

제주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농촌(읍·면부)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5%로 도시(동, 洞)지역의 7.5%보다 11.0%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 5.9%에서 2005년 7.5%로 1.6%p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은 2000년 14.2%에서 2005년 18.5%로 4.3%p 증가하였다(표 10. 참고).

농촌지역의 고령층 인구 증가는 농업 노동력의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예견할 수 있으나 장수사회에서 일자리 공급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젊은층 인구가 소농구조의 가족농을 계승하여 농업·농촌부문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야말로 농촌지역은 공동화(空洞化)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표 10> 제주지역 도시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교

(단위 : 명, %)

구 분		제주	도시(동부)	농촌(읍·면부)	농촌거주 인구(%)
2000년	전체인구(A)	512,541	360,263	152,278	29.7
	65세이상 인구(B)	42,924	21,261	21,663	50.5
	비율(B/A)	8.4	5.9	14.2	-
2005년	전체인구(A)	530,686	388,846		26.7
	65세이상 인구(B)	55,403	29,136		47.4
	비율(B/A)	10.4	7.5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제주지역의 노년부양비는 2006년 현재 15.8%로 2005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2006년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6.3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이고, 그리고 노령화지수는 50.2로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50.2명으로 나타난다(표 11. 참고).

2006년 현재와 비교하여 25년 후에 노년부양비가 2배 이상, 노령화지수는 4배 이상, 그리고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1> 제주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변화

(단위 : %, 명)

제 주	1980년	1990년	1996년	2006년	2016년	2020년	2030년
노년부양비(%)	8.9	8.7	10.0	15.8	20.7	23.4	38.0
노령화지수	13.5	23.4	29.6	50.2	101.0	127.4	203.7
노인1인당 생산가능인구(명)	11.3	11.5	10.0	6.3	4.8	4.3	2.6

출처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5.

주 :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이처럼 노년부양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적은 연령대인 20~30대의 처분가능소득을 더욱 적게 하여 동 연령대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고, 아울러 저축률이 하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 소비 및 저축, 산업 활동, 노년부양 등의 분야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국은행 제주본부, 2005:16-22). 2000년 제주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361천명으로 전체인구(524천명) 가운데 68.9%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현재 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68.3%로 전국(62.1%)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향후 2013년(75.0%)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은 결국 2016년 이후에는 잠재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상 1차 산업(특히 농업)에 고령층 인구가 많이 종사할 것으로 보여 노인들의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노동생산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인구의 일자리는 경제적 생산성을 증가시킬 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고 생계유지와 소일거리로 노동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젊은 농업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어 인건비가 비싸서 생산비 증가를 가져 올 것이다.

제주지역에는 아직까지 고령친화산업 혹은 장수산업에 대한 비전, 목표 및 실천전략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농업, 관광, 요양 및 휴양, 한방 등과 같은 분야에서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문화적 변화

장수사회가 도래하여도 제주의 독특한 지역문화(언어, 생활양식, 식생활 등)가 서서히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써 발달된 상황 하에서는 외래문화의 유입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문화가 외래문화에 빨리 동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전통사회와는 달리 새로운 노인문화가 형성되어 노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보다 독립적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은퇴 후 건강한 노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여가취미 및 자원봉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생산자 및 소비층이 형성되어 노인카페, 노인극장, 노인방송, 노인교통, 노인스포츠, 노인백화점, 노인병원 등과 같은 노인문화 공간 및 시설들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은퇴자 마을이나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생겨 새로운 지역문화의 모습을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은 지리적 이동시간이 짧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와의 사회적 관계 혹은 가족 유대감 형성과 유지는 계속될 것이다. 비록 핵가족 시대에 전통적 가족문화가 많이 변화하였지만 육지와 지리적 격리성, 지역 내 통혼권 유지, 가족성원간 접근 용이성 등으로 전통적 가족문화가 서서히 변화하여 다른 모습으로 재편화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의 보호와 부양에 의한 가족 울타리에서 보다는 사회적 부양시스템에 의존하여 노후생활을 보내는 노인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IV. 지속가능한 사회로서 장수사회 : 제주의 향후 과제

### 1. 외국사례의 시사점

오키나와 섬은 일본 국내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장수지역으로 장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지역이다. 여기서는 오키나와 사례를 통하여 제주가 향후 지속가능한 장수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고승한 외, 2005 ; 2007).

오키나와 현(縣)의 여성 평균수명은 1980년 이후 2005년까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인구 10만명 대비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최근 2007년 100세 이상 노인은 341명(남 50명, 여 291명)으로 2006년에 비하여 73명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300명대에 도달하였다.

오키나와 지역은 온난한 기후로 살기 좋고, 고령자의 영양, 운동, 휴양이 장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식생활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식염섭취가 일본에서 가장 적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으며, 야채류 섭취량이 많아 일본의 전통 식사 가운데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온난한 기후로 1년 중 신선한 야채가 풍부하고, 소금에 절인 음식도 적은 편이고, 된장국도 건더기가 많은 편이며, 생선회도 식초 등을 이용하므로 조리 상의 특징상 낮은 식염섭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 지역주민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며, 혈맥과 내장을 포함해서 모든 부위를 먹는 편이고, 또한 조리과정에서 시간을 가지고 삶아 지방분을 제외시키는 돼지고기 요리법도 주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식생활 문화가 장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키나와 지역주민들은 감자와 야채를 주식으로 한 소박한 것이었으나, 지역주민이 모두 나누어 먹는 공동체 문화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많은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고기, 생선, 콩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기회가 많은 것이 주민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오키나와 현 정부의 고령자 보호는 다양한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부터 고령자의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정·촌(市町村) 고

령자를 위한 지역자활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령자의 단독세대 및 고령부부 세대의 생활 근처에 보호네트워크가 형성되어져 일상적 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단독세대의 요지원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미니데이서비스, 회식회, 복지전화, 배식서비스, 긴급통화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안부 확인 및 고립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시·정·촌(市町村) 수준에서 가족 및 요개호자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시설서비스(특수 양로, 개호 요양 서비스)와 거택서비스(방문개호, 통원개호, 방문 및 통원재활 등)를 적절하게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족 등이 고령자를 적절하게 개호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개호실습 및 보급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또한 「고령자종합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縣)은 고령자 혹은 장수노인을 위해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동시에 노후생활에 활기를 주기 위해 노인스포츠를 1973년 이후부터 보급시켜 오고 있다.

노인의 창작의욕과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작품 문화전시회를 열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향토공예 및 문화예술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고령자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전국건강복지제」에 선수 파견과 「카리유시 장수대학교의 운영」사업을 실시한다.

경로사업의 일환으로 100세 장수자에게 지사기념품 증정, 고령자 축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현의 건강 및 장수문화의 지속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오키나와의 류큐대학 장수과학 연구 프로젝트팀에 지속적인 연구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오키나와 현(縣)이 세계적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지고 보존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청정자연환경, 공동체문화의 보존, 식생활문화, 음식문화, 고령자 복지정책의 질적 개선 및 제도적 지원, 그리고 장수지역 및 장수노인에 대한 연구사업의 활성화 등과 같은 요인들이 오키나와 현(縣)의 장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제주의 주요 향후 과제

제주도가 초고령사회 혹은 장수사회에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진정한 ‘장수의 섬’으로 자리매김하여 평화의 섬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주가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가. 청정자연환경의 보존

세계의 장수지역에는 항상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이 향후 장수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장수마을 혹은 장수지역에 대한 개발은 지속가능한 유형으로 접근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보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여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수마을 혹은 장수지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관련하여 건축, 경관, 고도제한, 도로포장, 자동차 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행위를 할 때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 나. 제주의 생활문화 계승과 발전

장수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식생활 습관을 가져 전통음식을 즐겨 먹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서구화된 인스턴트 식품/패스트 음식보다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야채류, 생선류, 육류 등을 이용하여 요리한 음식을 즐겨 먹는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소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문화의 창출 및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노인들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는’ 강한 자립 및 독립심, 생활력과 노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노동(일, 취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가 및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예컨대, 요가, 명상, 예술, 창작, 공예, 음악, 운동, 스포츠, 교육 등)의 개발 및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다.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하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예컨대, 소득보장, 주거보장, 보건의료, 고용,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노인복지 수준을 한층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가 맞춤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노인전문상담 인력을 육성하여 지역별로 「노인종합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 라. 사회적 인프라 구축

장수사회에서 노인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기존의 노인종합전문병원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장수사회에서 노화, 노인병, 노인식생활, 노인스포츠, 노인여가 및 문화, 노인복지, 장수산업/고령친화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고, 동시에 연구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마.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장수사회 대비를 위한 중·장기 장수복지정책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화된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장수마을 혹은 장수지역에 대한 보존 및 개발과 관련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및 장수사회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자문 및 심의 등을 담당하는 (가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0세 장수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수이미지 브랜드사업을 추진하여 장수이미지의 관광자원

화 사업, 장수식품의 개발사업,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혹은 장수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바. 장수문화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 확립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산·학·연·민·관이 상호 협력 체제를 가져 공동 대응하는 지원 네트워킹(Networking)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기업 및 산업체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학술 및 연구기관은 장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학제 간 연구에 힘쓰고, 행정기관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복지기관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공에 노력하고, 그리고 마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이웃 및 지역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등의 관련 주체들 간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 사. 장수노인에 대한 인적관리시스템 구축

장수사회는 장수이미지를 지역브랜드화하려면 지역에 장수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 여건들이 잘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장수노인들의 보호를 위한 인적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네, 이웃 및 지역사회 단위에서 「노인보호네트워크」가 결성되고 장수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아. 세계장수지역과의 교류활성화 증진

세계장수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장수사회의 당면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아울러 장수문화의 공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를 공동 주관하면 좋을 것이다. 장수사회의 문화 보존과 계승에 공동 노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 자. 장수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관련 장수브랜드 사업의 활성화

장수사회의 구축은 단순히 장수노인들이 인구학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런 장수이미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장수사회에서 장수이미지를 지역의 어메니티(Amenities)자원으로 활용하여 장수산업(혹은 고령친화산업)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예컨대, 법·제도, 연구, 물적 기반, 기업유치, 상품개발, 마케팅 등)들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수사회에서 타 지역 시·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장수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지역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전략 품목을 선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제주지역에는 농업, 관광, 식품, 한방의료, 재활, 요양 및 휴양, 교육, 연수 등의 장수산업 분야가 시장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V. 나오면서

미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연장되어 장수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해 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지금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각적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예컨대, 연금기금의 고갈, 저축과 소비 위축, 잠재경제성장률 저하 등), 그리고 노인이 겪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문제(예를 들면, 소득보장, 주택, 고용, 의료보장, 노인자살, 학대, 소외, 고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초고령사회에서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 대신에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노인들이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도 있다.

제주지역이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장수사회’로써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자연환경 및 생활문화의 보존, 질적인 노인복지정책, 제도적·사회적 인프라 구축,



장수노인의 인적관리시스템 구축, 장수문화의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세계장수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장수산업의 육성 등과 같은 향후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다각적 정책적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외. (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제57회 국정 과제회의 보고자료.
- 고승한 외. (2005), 「제주장수마을의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_\_\_\_\_. (2007),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김현숙 (2006),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저출산·고령사회극복 전국 간담회」 pp. 1-16.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박동석·김대환 외. (2003), 「고령화 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 박삼옥 외. (2005),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건직 (2007),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21세기 제주 고령사회 전망과 대응 모색」 세미나 자료. pp. 69-85.
- 장재호 (2008), “미래직업전망과 고용창출 전략.” 「제주지역 고용촉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 pp. 13-31.
- 제주도 (2005),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 제주하테크산업진흥원 (2008),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발굴 육성기획」.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 \_\_\_\_\_. (200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 \_\_\_\_\_.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_\_\_\_\_.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_\_\_\_\_. (2005) 「2005 고령자 통계」
- \_\_\_\_\_. (2005) 「2007 고령자 통계」
- \_\_\_\_\_. (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 피터 G. 피터슨 지음. 강연희 옮김. (2002),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서울: 에코리브르. 2002.
- 한국노동연구원. (200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5), 「제주지역 인구고령화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제주본부.
- Beck, Ulrich(1991), 「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김영호, “올리히베크 : 위험사회.” pp.101~131. 재인용. 사회비평사. 1999.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 Basic Books.

- \_\_\_\_\_. 1991. 「제3의 기술혁명 :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전기통신공사 출판부.
- Weber, W. (1995).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s Sports, Schorndorf 24-25. 「제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남지역의 인구유입정책 연구」 p. 236. 재인용. 제주발전연구원. 2004.